

〈표〉 EDC 2006년 상반기 주요 업무지표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2006년 상반기(전년대비 증감)	2005년 상반기
영 업 이 익	523 (25%)	417
당 기 순 이 익	305 (-60%)	761
부 실 자 산 비 율	14.5%	9.9%

39.0% 증가한 95억 캐나다 달러이었고, 대개도국 지원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한 76억 캐나다 달러였다. 또한, 상반기 EDC의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한 캐나다 기업 수는 5,870개 기업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하였다.

한편, 상반기 EDC의 당기순이익은 3억

캐나다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0%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신관련자산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자산비율의 증가(전년 상반기말 9.9%→금년 상반기말 14.5%)는 주로 항공 우주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박 해 선, 뉴욕사무소】

◆ 미수은의 Tied Aid War Chest 운영원칙 및 기준

미수은은 혼합신용 등 외국정부의 타이드 원조에 대응하여 미국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6년 'Tied Aid Trust Fund' (또는 Tied Aid War Chest)를 설치하였으며, 설립 이래 약 44건을 지원하였다.

War Chest의 운영원칙 및 기준은 ① 경쟁국이 타이드 원조를 제공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② 미수은이 먼저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No Initiation Principle)³⁾, ③ 경쟁국의 사실상의 타이드 원조성격의 언타이드 차관과 헬싱키 합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④ 개도국 시장에서 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정부의 타이드 원조 사용에 대응하여

미국기업을 보호하고, ⑤ 미수은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War Chest의 투입은 미수은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시장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고 (Dynamic Economic Criteria) 추가 수주효과(Follow-on Sales Criteria)가 있는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미국경제에 실익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원조공여국이 1989년 OECD 헬싱키 합의가 정한 타이드 원조 비적격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OECD 협약을 위반하거나 일탈하여 타이드 원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수은이 자동적으로 War Chest에 의한 매칭금융을 제공토록

3) 다만, War Chest의 지원이 경쟁국의 타이드 원조 공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경우 'No initiation principle'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먼저 공여(technical initiation)할 수 있음.

되어 있다. 한편, 타이드 원조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War Chest의 투입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미수은과 재

무부간의 War Chest 운영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해석방법의 차이로 알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개정된 미수은법에 반영된 것이다.

【김 재 철, 워싱턴사무소】

◆ 호주 EFIC, 수출중소기업 앞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EFIC)는 담보부족으로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EFIC Headway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중인 수출중소기업이 담보제공 없이도 대출한도의 최고 20%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Westpac, HSBC, ANZ, NAB,

CBA, BankWest 등 6개 금융기관이 EFIC의 동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한 은행이다.

호주 정부는 본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운전자본 부족으로 인한 수출기회 상실을 방지하여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선 우】

◆ 미수은,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에 2억 달러의 채무보증 지원

미수은이 지난 8월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의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 3단계 사업에 2억 달러의 채무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건에 앞선 1단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가, 2단계 사업은 스페인 ECA인 Cesce가 각각 1.3억 달러와 3.5억 달러를 직접대출 및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미수은은 동 금융지원으로 인하여, 미국

내 40여개 중소기업이 PEMEX와 총2.2억 달러 상당의 기자재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에도 미수은은 80% 이상의 금융이 중소기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고용창출이라는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할 계획이다.

【이 진 희】

◆ 캐나다 EDC, 크라이슬러 멕시코법인 앞 2억 달러 신용공여

EDC는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 멕시코법인 앞으로 다임러크라이슬러 캐나다로부터

생산된 자동차의 구매자금으로 활용될 약 2억 달러 규모의 신용을 공여키로 하였다.